



망고

구아바

인디언시금치

왁스애플

용안

파파야

아떼모아

## 기후변화 위기를 기회로...광양농업 아열대 작물로 활로 찾는다

지구온난화는 환경파괴와 자연재해를 불러 오는 등 인류에게는 분명 위기이다. 하지만 기존 변화에 따른 재배 농산물이 변하는 등 새로운 기회도 함께 제공해준다.

광양시가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아열대 작물 발굴 및 특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열대 작물 새로운 재배 환경=국내 내는 매년 강수량 증가 및 집중호우로 인한 토양 유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또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농작물 생산성도 떨어지고, 저수지가 고갈되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 20년 사이 국내에서 겨울은 최대 보름 가까이 짧아졌다. 그만큼 여름은 길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0년대 겨울의 평균 기간은 지난 1980년대에 비해 적게는 3.9일에서 많게는 14일 짧아졌다.

반면 국내 일(日) 평균기온이 20도, 일 최고기온은 25도를 넘는 여름은 최대 10일 이상 길어졌다.

날씨 변화는 농작물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벼꽃 개화일이 현재 평년(1971~2000년)이 과거 평년(1951~1940)

작목 개발 등 55억원 투자  
첨단 IT와 융·복합  
기술·자본집약적 재배

망고·용과·아떼모아 등  
시험재배 1ha→3ha로  
자동화 하우스도 대폭 확대

에 비해 5.2일 단축됐는 등 농작물 재배도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역특성 맞는 아열대 소득 작물 개발=이에 따라 광양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아열대 작물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한 교육, 에너지절감 시설 및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펼치고 농업진흥청, 전남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해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아열대 소득 작목 개발과 기술·자본 집약적 농업 육성 사업에 55억 원을 투자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소득 작목

개발과 첨단 IT기술을 융·복합한 기술·자본 집약적 농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로 인해 주산지역이 이동하고 돌발 재해와 병해충의 발생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아열대작물 시험재배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광양시가 아열대 작물 재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광양의 지리적 위치가 남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남쪽에 위치해 있어 아열대 작물 재배가 더욱 쉽다는 것이다.

또 아열대 과일의 국내 소비가 늘고,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수입이 증가해 국내 수요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광양시는 아열대 과수 재배 기반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15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지난해 1.2ha 면적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3ha로 점차 시험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아열대작물 실증 시험포 운영, 기후변화에 맞는 신소득 작물의 꾸준한 발굴로 재배기반을 구축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열대과일 실용화 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친환경 인증재배, 망고재배 자동화 하우스 시설, 친환경

재배, 해충 포획기 지원, 규격박스 제작, 컨설팅 등에 올해 2억원을 투입한다.

◇벼재배 줄이고 새로운 농가소득 각광=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열대과일(망고·시설감귤·한라봉) 재배면적(10ha 기준) 연 농가소득은 2700만원이었다.

광양시는 아열대 과일 수입이 다른 작목에 비해 높다고 판단, 벼 재배 면적을 70% 가량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원예와 매실 등 고소득 작목으로 꾸준히 전환하고, 아열대 과일 재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광양시는 망고, 패션푸르트, 용과, 아보카도, 용안, 왁스애플, 파파야, 구아바, 아떼모아 등 아열대 과일 9종과 여주, 오코라,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인디언 시금치, 콜라비 등 채소 6종을 90% 면적에 시험 재배하고 있다.

또 다양한 아열대 작물을 실증시험 재배해 농가 소득을 늘리고, 지역 브랜드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한편, 국내 아열대 기후(제주·남해안)는 연중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하면서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12개월 지속되는 지역을 말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아열대작물의 재배면적을 늘리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사진은 광양농업기술센터에서 아열대 작물을 둘러보고 있는 관계자와 농민들의 모습. <광양시 제공>

### 드라마 '불꽃속으로' 방영 광양제철 주목

故 박태준 명예회장 생애 다뤄

국내 철강 산업의 산 증인인 고(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생애와 대한민국 격동기를 다룬 TV조선 '불꽃속으로'가 방영되면서 광양포스코가 주목받고 있다.

TV조선(채널 19번)이 지난 25일 금요일 밤 11시부터 방영을 시작한 '불꽃속으로'(극본 이한호, 연출 김상래)는 박태준 회장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

실제 포항제철소 건립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픽션을 가미했다. 가난했던 한

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종합제철소를 만들어 가는 주인공의 성공 이야기, 어린 시절 은인이었지만 커서는 적이 된 라이벌과의 얽힌 인연을 그린 드라마다.

특히 광양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던 광양제철소 건립 과정이 담겨있고, 광양만 등이 소개돼 지역 홍보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총 20부작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11시에 TV조선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양교육청 청소년 뇌활용 교육 중단 논란

특정 종교단체 반발로

광양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뇌활용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특정 종교단체 반발로 중단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1일 광양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남 뇌교육협회와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해 뇌활용 프로그램 지원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해 올해 19개 학교 79개 반이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속에 진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모 종교단체가 교육청 관계자에 뇌교육협회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비

방자료와 음해영상을 배포하고, 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뇌교육 중지를 요구해 왔다.

광양교육청은 지난 29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뇌교육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광양교육청은 지난 2월 협약체결 후 각 학교 교장,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종교적 색채가 없고, 학생들의 반응 또한 좋게 나온 것으로 평가해 왔다.

이에 전남 뇌교육협회와 전남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연대는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포기하려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지난 30일 교육청에 협약이행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뇌교육을 도입한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의 의견을 제대로 파악한 이후 결정할 사안을 민원에 의해 교육청정이 좌지우지되면 안된다"며 우려했다.

더욱이 김기용 교육장은 당초 뇌교육 수업 지속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고 했다. 하지만 30일 해당 학교장을 불러 긴급회의를 갖고 뇌교육 프로그램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한 강사는 "뇌를 활용한 교육이 청소년 인성에 좋다는 의견에 따라 시작했는데 교육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없이 서둘러 중단하려 한다"며 교육청을 질타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이태리 가구 40% OFF

##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5월19일까지 한정판매